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하며,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24. 10. 28.

자료문의 : 대검 형사선임연구관실

전화번호 : 02-3480-3425

주책임자 : 형사선임연구관

제목

'24년 9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 대검찰청은 '24년 9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3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 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2명을 선정하였음
(※ 상세 내용 및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상 변경 취지 별첨)

① '대출을 빙자한 소액결제 사기' 송치 사건의 수사 중 피고인 중 1명이 다른 범죄의 자금 세탁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뒤, 다수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 치밀한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 4명이 '스캠코인'을 개발하여 리딩방을 통해 마치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 1,036명을 속여 함께 116억원 상당을 편취한 다음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4명 전원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함으로써 서민다중피해사범을 엄단한 사례 [서울북부지검]

② 조세포탈을 위해 무자료로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 후 폐업하는 방식의 속칭 '먹튀 주유소'의 사장 1명에 대한 송치사건에서, 피고인이 명의사장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후 실행위자를 확인하여,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직접수사를 통해 '먹튀주유소' 7개소를 운영하면서 139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매입, 판매한 조직의 총책, 명의사장 및 알선 브로커 등 5명을 '23. 10. ~ '24. 7. 구속 기소하고, '24. 9. 명의사장, 석유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매수자 및 운영자 등 6명을 기소함으로써 무자료 유류의 유통을 막고 조세포탈 사범을 엄단한 사례 [인천지검]

③ 「'22년 1월 평택시에서 발생한 피해규모 약 287억원 상당의 냉동창고 화재 사건」(진화 중 소방관 3명 순직)에 대해 '발화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되자, 재수사요청 후 송치요구로 사건을 송치받아, 전력소비량 관련 자료 확보 및 분석, 국립소방연구원 감정 및 대검 화재 감정 등 다각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발열예방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한 열선에 전력이 공급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 발화원인을 직접 규명하여 공사현장 소장 등 피고인 6명을 기소하고, 진화 중 순직한 소방관의 유족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한 사례 [평택지청]

④ [청주지검 이대희 검사] 많은 인원을 조사하면서도 배당받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재수사요청, 보완수사요구, 재배당 등이 반복되면서 사건 발생 후 2년여간 처리가 지연된 3건을 재배당받아 보완수사 후 종국처분하고, 재배당받은 많은 양의 장기미제도 대부분 처리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

⑤ [홍성지청 전은석 검사] 배당받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면서도, 수차례 보완수사와 이송을 반복한 다수의 장기 지연 사건들을 재배당받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재배당 받은 장기미제 상당수를 꾸준히 처리하였고,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하면서 12건에 대해 송치 의견과 달리 처분하는 등 충실한 사건 처리에 힘썼음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1	서울북부 형사제1부	<p>【직접수사, 서민다중피해사범 엄단】 ‘대출을 빙자한 소액결제 사기’ 송치 사건의 수사 중 피고인 중 1명이 다른 범죄의 자금 세탁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뒤, 다수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 치밀한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 4명이 ‘스캠코인’을 개발하여 리딩방을 통해 마치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 1,036명을 속여 함께 116억원 상당을 편취한 다음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4명 전원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함으로써 서민다중피해사범을 엄단한 사례</p>
	임유경(34)	<p>사안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5.~’22 8.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위 스캠코인(WPC 코인)을 개발하여 해외거래소에 상장하고 시세를 조정하여 가격을 높인 다음, 리딩방을 통해 마치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 총 1,036명을 속여 코인을 판매함으로써 약 116억원 상당을 편취 [사기] ○ 위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116억원을 대포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소위 ‘뒷장’ 계좌로 송금하여 상품권업자 등을 통해 마치 상품권을 구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이정호(38) 서형우(변11)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을 빙자한 소액결제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피의자 중 1인이 다른 범죄의 자금 세탁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추적, 관련 불송치결정 기록 분석, 참고인 20명 조사, 관련자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피고인 4명이 소위 ‘스캠코인’을 개발하여 리딩방을 통해 마치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 1,036명을 속여 함께 116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범행 전모를 밝혀내고, ○ 피고인 4명 전원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함으로써 서민다중피해사범을 엄단한 사례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2	인천지검 형사제4부	<p>【직접수사, 조세포탈사범 엄단】 조세포탈을 위해 무자료로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 후 폐업하는 방식의 속칭 '먹튀주유소'의 사장 1명에 대한 송치사건에서, 피고인이 명의사장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후 실행위자를 확인하여,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직접수사를 통해 '먹튀주유소' 7개소를 운영하면서 139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매입, 판매한 조직의 총책, 명의사장 및 알선 브로커 등 5명을 '23. 10. ~'24. 7. 구속 기소하고, '24. 9. 명의사장, 석유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매수자 및 운영자 등 6명을 기소함으로써 무자료 유류의 유통을 막고, 조세포탈 사범을 엄단한 사례</p>
	용태호(36)	
	민경찬(변8)	

사안 개요

- (피고인 A, B : 먹튀주유소 운영 및 매매 조직 총책, 피고인 C : 먹튀주유소 양수 및 운영)
 - '21.2~'23.6. 인천·용인 등에서 함께 81억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단기간 판매 후 폐업 [조세범처벌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등]
 - '23.5~12 명의사장 명의로 설립한 법인들을 다른 먹튀주유소 운영자 C에게 1개소당 4천만원에 매도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석유사업법위반방조 등], C는 매수한 주유소에서 58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 후 폐업 [조세범처벌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 '21.6.~'24.4.경 명의사장들이 수사기관에서 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 [범인도피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D :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23. 1.~5. 먹튀주유소 운영자 A에게 약 18억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 공급 [석유사업법위반]
- (피고인 E, F, G, H, I : 명의사장 및 모집책) '21.6.~'24.4. A, B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 및 금품 수수 [범인도피]
- (피고인 I, J : 명의사장 및 모집책) '23.6.~7. 수사기관에 대신 출석할 명의사장 E, F를 알선, '23. 6. A, B의 요청으로 E의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전직 경찰인 법무법인 사무장 K에게 담당 경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 공여 [범인도피, 변호사법위반]
- (피고인 K : 전직 경찰 출신 사건 브로커) 전직 경찰(경감)인 법무법인 사무장으로서, 23. 6. J로부터 E의 조사 담당 경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 수수 [변호사법위반]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이 명의사장 1명에 대해서만 송치한 사건을 검찰은 실운영자를 재확인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요구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된 실운영자에 대해 검찰에서 총책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배후에 있는 전국적인 먹튀 주유소 운영·매매 조직과 그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음 ○ 피고인들은 약 3년에 걸쳐 단기간에 무자료 석유를 판매하고 세금을 포탈한 채 폐업한 뒤 명의사장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계속 먹튀주유소를 운영해 왔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조직적인 범행의 배후를 밝히고 총책 등 주범 5명을 구속 기소, 명의사장 등 6명을 기소함으로써 조세 행정의 건전성을 훼손한 사범을 엄단한 사례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3	평택지청 형사제2부	<p>【정성처리】 「'22년 1월 평택시에서 발생한 피해규모 약 287억원 상당의 냉동창고 화재 사건」(진화 중 소방관 3명 순직)에 대해 '발화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되자, 재수사요청 후 송치요구로 사건을 송치받아, 전력소비량 관련 자료 확보 및 분석, 국립소방연구원 감정 및 대검 화재 감정 등 다각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발열예방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한 열선에 전력이 공급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 발화원인을 직접 규명하여 공사현장 소장 등 피고인 6명을 기소하고, 진화 중 순직한 소방관의 유족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한 사례</p> <p>사안 개요</p> <p>○ '22. 1. 5. 평택 소재 냉동창고 신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열선간 간격을 일정하게 포설하지 않고, 발열 예방 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등 시방서대로 시공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창고 1층 내벽 해체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건물로 번지게 함으로써 냉동창고 소훼(피해액 약 287억원) [업무상실화]</p> <p>선정 이유</p> <p>○ 「'22년 1월 평택시에서 발생한 피해규모 약 287억 상당의 냉동창고 화재 사건」이 발화원인 미특정, 피고인들 범행 부인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자, 열선당 소비전력량 확인 등을 위한 재수사요청 후 경찰의 미이행에 따라 송치요구하여 사건을 송치받아, - 약 20,000쪽 상당의 기록 검토, 전력소비량 관련 자료 확보 및 분석, 국립소방연구원 감정 및 대검 화재 감정 등 다각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특정 열선에 전력이 공급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공사현장 소장 등 피고인 6명 전원을 기소</p> <p>○ 진화 중 순직한 소방관의 유족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p>
	최용락(36)	
	심요한(변6)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4	청주지검 형사제2부	<p>【형사부 본연의 임무 충실】 많은 인원을 조사하면서도 배당받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재수사요청, 보완수사요구, 재배당 등이 반복되면서 사건 발생 후 2년여간 처리가 지연된 3건을 재배당받아 보완수사 후 종국처분하고, 많은 양의 장기미제도 대부분 처리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p> <p>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지검 이대희 검사는 다수 인원을 조사하면서도 배당받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많은 양의 장기미제도 대부분 처리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 ○ 2년여간 사건처리가 지연된 3건을 재배당받아 DNA 감정, 112 신고내역 확인, 진술분석 등 과학수사에 기반한 물증을 보장하는 등 치밀한 보완 수사 후 종국처분(기소)하였음
	신도욱(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재수사요청, 송치요구, 시정조치요구,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된 사건(22. 6. 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형제간 상해치사 사건), - ②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시한부기소중지, 재배당이 반복된 사건(22. 4.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 ③ 송치 후 2회의 보완수사요구, 시한부기소중지, 3회의 재배당으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 사건(21. 9. 식당 업주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등
	이대희(변7)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5	홍성지청 형사부	<p>【형사부 본연의 임무 중실】 배당받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면서도, 수차례 보완수사와 이송을 반복한 다수의 장기 지연 사건들을 재배당받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재배당받은 장기미제 상당수를 꾸준히 처리하였고,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하면서 12건에 대해 송치 의견과 달리 처분하는 등 충실한 사건 처리에 힘썼음</p>
	정원석(37)	<p>선정 이유</p> <p>○ 홍성지청 전은석 검사는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건 재판에 직관을 다니면서도 배당받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재배당받은 장기 미제들을 꾸준히 처리해왔으며, 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에 힘썼음</p>
	전은석(변7)	<p>○ ① 2~3년간 여러 차례 재배당되거나 이송을 반복하는 등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 사건 3건을 재배당받아 신속히 처리하고, ②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 후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재수사요청하여 기소한 사례 3건, ③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불기소처분한 사례 9건 등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하였음</p>

※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상 변경 취지

- 이번 달부터 형사부 역량 강화, 신속한 사건 처리 및 장기간 적체된 장기미제의 해소를 위해,
 - 기존과 같이 우수 수사사례를 낸 검사 외에도,
 - 우수 수사사례 등 실적이 없더라도,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송치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를 묵묵히 해나가는 우수 검사를 함께 선정하기로 하였음
- 선정 방식은 새로 배당받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재배당 등을 통해 발생한 장기미제를 줄여 나간 검사를 일선청의 추천을 받아, 아래와 같은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함
 - 장기미제 상태로 재배당되거나 수차례 재배당되면서 수사기간이 장기화된 사건을 종국처리한 사례
 - 여러 차례 이송되거나 기소중지 등이 반복된 사건을 종국처리한 사례
 - 불송치된 사건을 이의신청 또는 재수사요청 등에 따라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하여 기소한 사례
 -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사례 등